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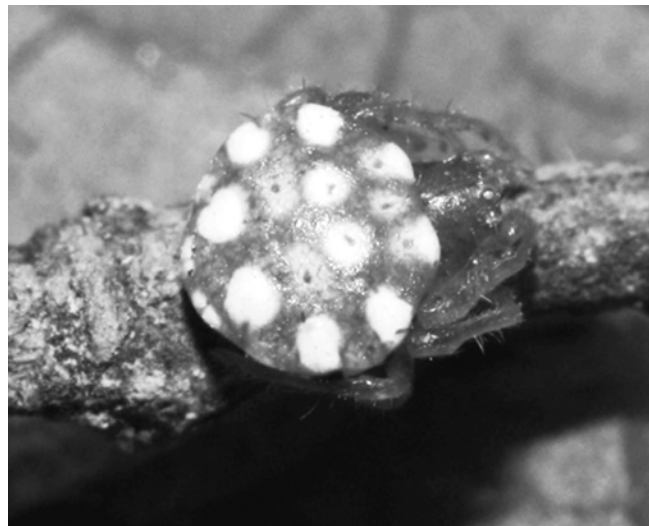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3000여종이 넘는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등산이 ‘국민의 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늘다람쥐



으름 난초



주황흰점무늬새뚝거미

‘생명의 寶庫’ 무등산

멸종위기 삶·담비 등 3668종 서식…자연자원 풍부

공원사무소, 평두메습지 보호구역 지정 등 특별관리

◇3000여종이 넘는 생명체의 서식지=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진행한 ‘2013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등산에서 확인된 식물은 1063종, 포유류 25종, 조류 106종, 어류 19종, 곤충 1307종, 파충류와 균류 1148종 등 모두 3668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광주시에서 도립공원 당시 국립공원 지정에 위해 진행한 타당성 자연자원조사 결과(1541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고, 북한산(3790종)과 계룡산(4306종) 등 면적이 비슷한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수치다.

무등산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수달, 담비, 삿 등 멸종위기종 13종과 독수리, 올빼미 등 천연기념물 11종 등 모두 24종에 달했으며,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고유종도 한국산개구리, 산골조개 등 47종에 이르렀다. 국내 미기록종도 9종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제 4수원지(평두메습지)에서 북한산 개구리가 4만개체 이상 발견되는 등 국립공원 가운데 최대 서식지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사무소 측은 두더지, 너구리, 오소리, 붉어 등 다양한 동·식물이 확인된 이 일대를 ‘특별보호

구역’으로 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원면적 대비 외래식물종 분포 면적은 0.9를 기록, 지리산(0.1)이나 설악산(0.1)보다 높고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훼손지 관리 방안 마련=무등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주상절리대와 너덜경, 폭포, 풍화 동굴 등 수려한 자연환경도 이번 조사로 재조명됐다. 산지 지형 가운데 풍화와 침식으로 만들어진 동굴과 바위 등은 모두 22개, 퇴적 지형도 38개에 달했다.

문화자원도 중심사 철조비로자불좌상(보물 제131호)과 개선사지 석등(보물 제111호), 약사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00호)을 비롯한 모두 84점이 확인됐다. 사무소 측은 자연·인문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주요 식물군락이나 특징종의 번식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탐방객 조사 결과 지난해 무등산을 찾은 475만 7222명의 탐방객 중 92.6%가 광주·전남 지역민으로 분석된 만큼, 타지역 탐방객을 그나마 줄 수 있는 환경·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경제가치 6조원…도립공원때의 2배

3000여종이 넘는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무등산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의 경제적 가치가 5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무등산사무소가 탐방객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뒤 산출한 ‘보존가치’와 국립공원 1회 방문시 얻는 가치를 금액으로 추정한 ‘이용가치’를 각각 분석한 수치다.

사무소는 보존가치는 1가구당 1만3259원, 이용

가치는 1인1회 방문 때 8732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우리나라 총 가구수를 곱하면 무등산의 연간 보존가치는 2330억원, 연간 이용가치는 41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무등산 국립공원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미래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들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는 5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사무소 측 설명이다. 이는 도립공원 시절인 지난 2008년 2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박정렬기자 halo@

“폐암, 흡연과 무관” 대법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면 제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

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옛 태백인삼공사)와 국가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항소심은 흡연자 7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3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꼬마버스 타요’ 광주서도 타요

서울시, 캐릭터 사용 허가…市, 5월5일부터 4편 임시운행

‘꼬마버스 타요’가 늦어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는 광주 도심을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기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 사용권을 가진 서울시가 광주시의 타요 버스 캐릭터 사용 요청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일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 공동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 EBS는 타자치단체의 ‘타요버스’ 캐릭터 활용 요청에 대해 비영리 목적에 한해 캐릭터 사용을 무상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내주면 실제 운행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며, 지역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버스대수와 운행 시간도 정하게 된다. 버스 한 대를 예니메이션 속 꼬마버스 타요로 꾸미는 데는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4월말까지 꼬마버스 타요의 주인공 캐릭터인 타요와 로기, 라니, 가니 등 4대의 버스를 한시적으로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의 확대 요구가 이어지면서 운행 대수를 100대로 늘리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운행기간도 연장했다.

특히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타요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로 몰려와 출발

차고지에서부터 기다릴 만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서울시의 타요 캐릭터 무상허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늦어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는 타요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주 시내버스 중 예비버스 4대를 타요, 로기, 라니, 가니로 꾸며 특별노선을 편성, 임시 운행할 예정이다.

버스 내에는 타요 캐릭터 복장을 입은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이용객이 몰릴 경우에 대비해 사전 예약제 등을 검토중이다.

또 버스 1대당 1회 운행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노선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공원이나 유원지 등으로 짜여지며, 타요와 함께 도심에 질주하고 도중에 내려 기념촬영 시간을 갖는 등 ‘어린이 맞춤형 도심 투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2010년 8월 EBS에서 첫 방영을 시작한 꼬마버스 타요는 호기심 강하고 명랑한 낙천적인 성격의 새내기 꼬마 버스 타요를 주인공으로, 뽀내기를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꼬마 버스 ‘로기’와 예교 만점 꼬마속내 버스의 ‘라니’, 조용하고 생각이 깊어 남을 잘 배려하는 성실한 ‘가니’ 등과 좌충우돌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린이 페럼 백신, 다음달부터 무료 접종

다음 달부터 페럼 등을 일으키는 페럼구균에 대한 예방 백신도 아이들에게 무료로 맞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페럼구균을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기에 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고시,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11~18일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5세 미만(59개월이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페럼구균 예방 백신을 맞출 수 있다.

만 5세(60개월)이상 아이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페럼구균 감염 위험이 큰 경우라면 의사 상담을 거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페럼구균은 페럼·축농증(부비동염)·중이염·수막염 등 급성 감염 질환의 원인으로, 특히 소아에게는 치명적 세균이다. 어린이의 경우 생후 2·4·6개월 시점에 세 차례 기초 접종하고, 다시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마쳐야한다.

초기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다면, 꼭 네 차례 접종을 모두 받지 않아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만 만5세(60개월)이상 소아에게는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다.

페럼구균 백신을 포함한 13가지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복개상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통 새마을금고)

대표전화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임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227-4474
금호지점 383-4474
풍암지점 653-4474